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1, Vol. 30, No. 1, 305-323

성취 지향적 ·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자의 암묵적 · 명시적 자존감*

박 승 진 최 혜 라 이 훈 진†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생 우울성향 집단을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은 명시적 자존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암묵적 자존감에 있어서는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이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BDI와 성격양식질문지(PSI-Ⅱ), 암묵적 자존감 측정치의 하나인 이름철자 및 생일숫자 선호 검사(IBPT)와 명시적 자존감 측정치인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SES)를 이용하여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집단의 암묵적 자존감과 명시적 자존감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은 명시적 자존감 수준에서는 관계 지향적 우울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암묵적 자존감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의 목적은 또 다른 암묵적 자존감 측정치인 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이용하여 연구 1의 결과를 반복 검증하는 것이었다.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 13명, 관계 지향적 우울집단 14명, 통제집단 11명에게 암묵적 연합 검사의 자극을 세분화해 성취관련 IAT와 관계관련 IAT를 측정 후, 해결 불가능한 애너그램 과제를 실시해 실패 경험을 유도하여 IAT 점수를 측정하였다. 연구 1의 결과와 달리 IAT 점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은 애너그램 과제 후 유의미한 IAT 점수 하락을 보여 암묵적 자존감이 불안정함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이 명시적 자존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이 암묵적 자존감은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 임상적 함의와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취 지향적 우울, 관계 지향적 우울, 암묵적 자존감, 명시적 자존감

---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훈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Fax : 02-877-6428 / E-mail : hjlee83@snu.ac.kr

www.kci.go.kr

우울의 심각도와 임상양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와 임상가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우울의 핵심특징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Clark, Beck, & Alford, 1999). 경험적 연구들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낮은 자존감(self-esteem)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반복 검증되었다(Ingram, Miranda, & Segal, 1998). 또한 우울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뿐 아니라 자존감의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의 불안정성이란 매일의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자존감이 쉽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울의 또 다른 취약요인으로 알려져 있다(Kernis, Cornell, Sun, Berry, & Harlow, 1993).

하지만, 자존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자존감의 측정치로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하려는 긍정적 자기제시 편파에 의해 편향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검사는 의식에 분명하게 떠오른 생각만을 측정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좀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저의 자존감을 연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의식적인 자기평가 이면에 자동적이고 경험적인 자기평가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Greenwald & Banaji, 1995), 이를 "암묵적 자존감(implicit self-esteem)"이라 개념화하여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암묵적 자존감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는 방법들은 사람들이 이름이나 생일숫자 같은 자기와 관련된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태도는 그러한 대상을 접했을 때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가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는 이름철자 및 생일숫자 선호검사(Initials and Birthday number Preference Task;, 이하 IBPT; Nuttin, 1985)이다. 이 과제는 사람들의 이름 이니셜과 생일 숫자는 자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다른 글자나 숫자에 비해 그 이니셜과 생일 숫자를 얼마나 더 좋아하느냐가 자기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반영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Nuttin, 1985).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은 또 다른 측정도구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이하 IAT) 이다(Greenwald & Farnham, 2000). IAT는 남녀차별이나 인종차별 같은 미묘한 문제들을 측정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IAT검사는 서로 관련된 개념을 동일한 키(반응단추)에 반응하게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근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osson, Brown, Zeiger-Hill, & Swann, 2003; Dijksterhuis, 2004; Jones, Pelham, Mirenberg, & Hetts, 2002; Shimizu & Pelham, 2004). 우울증의 경우, 자존감 문제가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우울증을 대상으로 한 암묵적 자존감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암묵적 자존감에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긍정적 자기 편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 Raedt, Schacht, Franck, & De Houwer, 2006; Franck, De Raedt, De Houwer, 2007; Germar, Siegal, Sagrati, & Kennedy, 2001).

우울한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편향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우울증이 하나의 단일한 집단이라기보

www.kci.go.kr

다는 상당히 다양한 이질적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우울증 내에서도 암묵적 자존감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성격유형'에 따라 우울증의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려는 시도에 주목했는데, 암묵적 자존감이란 더 이른 나이에 발달하고(Hetts & Pelham, 2001), 부모 양육의 질 및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Dehart, Pelham, & Tennen, 2006).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취약한 성격유형으로 Beck, Epstein, Harrison과 Emery(1983)가 제안한 성취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한 후 암묵적 자존감과 자기보고식의 명시적 자존감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Beck(1983, 1987)에 의하면, 관계지향적 유형은 친밀감, 수용, 이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타인의 거부에 민감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대인관계 행동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지나치게 타인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Hokanson & Butler, 1992). 반면에, 성취지향적 유형은 스스로 정한 목표와 역할 기대의 성취를 통해 자기가치감이 창출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성격은 타인과의 관계에 개입되는 것을 거부하며 관계에서 철수되어 있고 타인의 관심과 도움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관적인 기대를 가진다. 또한 현재의 난관에 대해 자책하고, 자기 비판적이며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 실패나 좌절을 맞게 되었다는 인지적 왜곡을 갖는다(Hammen, Gitlin, & Jamison, 1989). Beck의 이론은 Blatt(1974), Bowlby(1980), Arieti와 Bemporad(1980)등이 제안한 우울의 유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하위유형들은 모두 대인관계상의 혼란에서 비롯되는 우울과, 자기 개념이나 정체감의 혼란에서 비롯되는 우울의 구분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성취지향적 우울과 관계지향적 우울 집단의 자기평가 특성에 대한 몇몇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일관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다. 일단, 국내에서는 4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자기지각검사를 이용한 김순진(1988)의 연구에서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은 관계지향적 우울집단보다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했다. 윤현수와 오경자(2004)의 연구에서는 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이 자기보고식의 자존감 측정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대인표상에 있어서는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이 관계지향적 우울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해 Zuroff, Moskowitz, Wielgus, Powers와 Franko(1983)은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이 대인관계에서 좀 더 많은 거부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Bieling과 Alden(1998)의 연구에서도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은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따뜻하고 친밀한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타인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대인관계 패턴으로 인한 행동 때문에 타인들은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을 덜 좋아하고 더 많이 거부하며, 이로 인해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은 타인으로부터 더욱더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고 보고되었다.

손보영과 정남운(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비판적 우울집단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

www.kci.go.kr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상황에서 강한 불안과 긴장감, 소극적 자기개방과 대인관계에서 철수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제안되었다. 최승미(1997)는 자기 비판적 우울집단과 의존적 우울집단을 분류한 뒤, 로샤 검사를 실시하였다. 낮은 형태질(-)의 인간 부분 반응인 Hd-의 경우엔 정상집단과 의존적 우울 집단에 비해 자기 비판적 우울집단의 반응빈도수가 높아 인간 표상에 대한 좀 더 부정확한 지각을 나타냈다. 또한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의 경우 각각 20명의 피검자들 모두에게서 단 하나의 반사 반응도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기비판적 우울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명의 피검자들이 반사 반응을 나타냈다.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게 축적된 것은 아니나,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이 더 부정적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더 많은 점, 그리고 Beck 등(1983)의 구분에서도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이 더 정체감 혼란이나 자기가치감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이 관계지향적 우울집단보다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더 낮거나 더 불안정한 암묵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집단이 실제로 암묵적 자존감 수준에서 통제 집단과 차이가 없는지, 하위 유형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집단,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이름철자 및 생일숫자 선호 검사(IBPT)를 통해 암묵적 자존감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또 다른 암묵적 자존감 측정 방법인 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이용하여 암묵적 자존감의 차이를 반복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실패 경험 이후의 암묵적 자존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암묵적 연합검사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과제를 제시해 실패 경험을 유도한 뒤, 암묵적 연합검사의 점수변화를 살폈다.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은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집단은 명시적 자존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암묵적 자존감에 있어서는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이 더 낮고 불안정하다는 것이었다.

연구 Ⅰ. 성취 지향적 ·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자의 암묵적 · 명시적 자존감: 이름철자 및 생일숫자 선호검사를 통한 비교

연구 1에서는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집단,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이름철자 및 생일숫자 선호 검사(IBPT)와 Rosenberg 자존감 검사를 통해 암묵적 자존감과 명시적 자존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시내 대학생 39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령은 18세에서 29세 범위였으며 남자(164명)의 경우 평균 연령은 21.5세(SD=2.4)였으며, 여자(227명)의 경우 평균 연령은 20.8세(SD=1.8)였다.

www.kci.go.kr

측정도구

이름철자 및 생일숫자 선호 검사(Initials and Birthday number Preference Task, 이하 IBPT)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중의 하나로 Nuttin(1985)의 이름 철자 효과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참가자들은 알파벳과 1부터 35까지의 숫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7점 척도상에서 평가한다. 참가자들은 Jones, Pelham, Mirenberg와 Hetts(2002)의 방법에 따라 각각의 알파벳과 숫자를 "당신의 직관을 믿고, 마음이 가는 대로 빠르게,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평가하라는 지시문을 읽었다. 설문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마지막 장에 그들의 영문 이니셜과 생일 숫자를 적었다. Koole, Dijksterhuis와 Knippenberg(2001)가 4주의 기간을 두고 실시한 결과 검사 재검사 신뢰되는 .64였고, Bosson, Swann과 Pennebaker(2000)가 보고한 이 검사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6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4주 간격으로 실시했을 때는 .56이었다. 기존의 이름철자 및 생일숫자 선호 검사를 이용한 암묵적 자존감 연구(Bosson et al., 2003)를 보면, 명시적 자존감은 높지만 암묵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방어성과 자기애를 보였다. 또한 암묵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신체 증상을 보고했다(Shimizu & Pelham, 2004).

성격 양식 질문지(The Personal Style Inventory-Ⅱ, 이하 PSI-Ⅱ)

Beck이 우울취약성으로 제안한 성취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 성격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척도(SAS; Beck, Epstein, Harrison, & Emery, 1983)를 Robins 등(1994)이 단점을 보완해 제작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민규(2000)가 번안해 요인구조를 확인했다. 이 척도는 성취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을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 공히 24개씩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점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판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3 .82로 보고되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80 .77로 나타났다. 두 요인은 비교적 독립적이며 우울 증상 정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우울의 취약성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민규, 2000).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은 각각 .87 .88이었다.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 이하 RSES)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이다. 10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한국판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9이고 요인 분석 결과 단일요인 구조로 보고되었다(이훈진, 원호택, 1995).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9였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생리적 영역을 포함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1961)가 개발한 21문항의 자기 보고형 척도이다. 국내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www.kci.go.kr

결과 및 논의

IBPT 점수

IBPT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Kitayama와 Karasawa(1997)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철자와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선호도를 구성하기 위해 해당철자와 숫자가 이름이나 생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각 철자와 숫자의 선호점수 평균을 구했다. 두 번째로, 참가자들이 평정한 선호 점수에서 기본적인 선호도를 빼서, 각각의 철자와 숫자에 대한 상대적 선호 점수(relative liking score)를 구했다. 세 번째로 참여자들의 이름이니셜이나 생일숫자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 점수 평균에서 그렇지 않은 알파벳이나 숫자들의 상대적인 선호 점수 평균을 빼서, 자기이름철자나 생일숫자에 대한 선호수치를 구했고, 이 선호수치를 더해 IBPT 점수를 구성하였다 (Dijksterhuis, 2004). 이 수치가 클수록 더 높은 암묵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BPT 점수의 평균은 0.69였고, 표준편차는 1.34였다. 단일표본 t-검증을 했을 때 이러한 IBPT점수는 0과는 유의미하게 달랐다, $t(383)=10.105$, $p<.001$,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이름철자나 생일숫자를 다른 알파벳이나 숫자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BPT효과와 다른 측정치들간의 상관

IBPT를 통해 측정한 암묵적 자존감이 다른 측정치들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IBPT는 명시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RSES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391)=.065$, *ns*. 이것은 IBPT가 명시적 자존감과는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Bosson, Swann, & Pennebaker, 2000). 또한 명시적 자존감은 우울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r(391)=-.617$, $p<.001$, IBPT점수는 우울과 0에 가까운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1. 이름철자별 생일숫자선호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N=383)

	평균	표준편차
자기이름 알파벳	0.47	0.92
자기비관련 알파벳	0	0.55
자기 생일숫자	0.27	1.09
자기비관련 숫자	0	0.53

성취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은 약한 정적 상관을 보여 $r(391)=.181$, $p<.001$, 서로 관련은 있지만 구별되는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BDI와도 성취 지향성 $r(391)=.317$, $p<.001$, 관계 지향성 $r(391)=.273$, $p<.001$, 모두 중간수준 이하의 상관을 보여 성취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은 우울과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우울증상보다는 우울에 취약한 성격차원을 측정한다는 가정(Robins et al., 1994)과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 통제집단간 비교

성취 지향성 점수와 관계 지향성 점수를 기준으로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집단선발기준은 기존연구에 쓰인 방법(Bieling & Alden, 1998)을 따랐다. 기준은 다음과 같았

www.kci.go.kr

표 2. IBPT와 주요 변인간 상관계수 (N=391)

	IBPT	성취지향성	관계지향성	자존감
성취지향성	-.143**			
관계지향성	.141**	.181***		
Rosenberg 자존감	.065	-.278***	-.289***	
우울(BDI)	-.026	.317***	.273***	-.617***

**p<.01. ***p<.001.

다. 먼저 Kovacs와 Beck(1978)이 경등도의 우울이라고 분류한 BDI 10점 이상인 우울집단을 선발하였다(N=116명). 이 우울집단에 속한 사람 중에서 성취 지향성 점수가 상위 50% 이상(83점 이상)이면서 관계 지향성 점수가 하위 50% 이하(90점 이하)인 경우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에 할당되었다.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은 우울집단 중에서 관계 지향성 점수가 상위 50% 이상(91점이상) 이면서 성취 지향성 점수가 하위 50%이하(82점 이하)인 경우로 하였고, 통제집단은 BDI에서 하위 50% 이하(5점 이하)인 경우로 하였다. 그 결과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은 27명(남 13명, 여 14명)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은 25명(남 6명, 여 19명), 통제집단은 186명(남 85명, 여 101명)이 선발되었다. 각 집단의 나이평균은 순서대로 22.1(2.2), 21.0(2.37), 21.6(2.48)이었고, 집단 간 나이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2, 232)=1.260$, *ns*. 남녀 분포에서 집단차이가 나타났으므로, $\chi^2(2, N=238)=6.223$, $p<.05$, 이후에 변량분석을 할 때는 성별을 공변인으로 넣어서 분석했다.

우선, 집단의 구성이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취 지향성, 관계 지향성, BDI 우울 점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변량분석한 결과와 각 집단 간 차이에 대한 Scheffe 검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각각의 집단이 기준에 의해 잘 나뉘었음을

표 3. 집단별 성취 지향성, 관계 지향성, 우울, 자존감 점수 및 IBPT효과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 (n=27)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 (n=25)	통제집단 (n=186)	F (2, 232)	Scheffe 검증결과
성취 지향성	94.6(11.3)	73.2(5.5)	77.7(14.3)	21.199***	성취>관계=통제
관계 지향성	80.2(8.5)	103.6(9.3)	86.2(14.3)	21.714***	관계>성취=통제
BDI 우울	16.81(7.5)	15.4(3.2)	2.1(1.7)	414.4***	성취=관계>통제
IBPT 효과	-0.3(1.1)	1.1(1.4)	0.8(1.4)	8.72***	관계=통제>성취
로젠버그자존감(RSES)	28.2(5.6)	28.1(4.3)	33.9(3.7)	40.70***	통제>성취=관계

***p<.001.

www.kci.go.kr

알 수 있다.

다음으로 IBPT, 로젠버그 자존감척도 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와 Scheffe 검증결과를 표 3에 함께 제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명시적 자존감은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 모두 통제집단보다 낮지만, 두 집단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IBPT에서는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연구 2. 성취 지향적 ·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자의 암묵적 자존감: 암묵적 연합 검사를 통한 비교

연구 2는 또다른 암묵적 자존감 측정치인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통해 연구 1의 결과를 재검증하고, 실패 조작을 통해 암묵적 자존감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기존의 암묵적 연합 검사를 이용해 우울한 사람들의 암묵적 자존감을 연구한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단어 자극으로 개인의 유능함이나 성취와 관련된 용어가 주로 쓰였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취와 관련된 단어 외에, 대인관계적인 측면의 단어를 추가해서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1에 참가한 391명 중에서 성격양식질문지(PSI-Ⅱ)와 한국판 Beck우울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새로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 14명(남 7, 여 7)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 14명(남 6, 여 8) 통제집단 13명(남 6, 여 7)을 선발하였다. 집단선발기준은 연구 1과 같았다.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 중 연구 2를 시작할 때 측정한 BDI 점수가 지나치게 낮았던(BDI 7점 이하) 1명과, 통제집단 중 우울점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2명(BDI=10, 12점)을 제외하고 3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1.84세(SD=2.20)였으며, 집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35)=2.74$, *ns.* 집단 간 성비차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chi^2(2, N=38)= 0.349$, *ns.*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은 연구 2를 시작할 때 작성한 BDI와 $F(2, 35)=34.581$, $p<.001$, RSES에서 $F(2, 35)=5.110$, $p<.05$, 통제집단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또한 성취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연구 1과 동일하게 유의미하였다, $F(2, 35)= 32.224$, $p<.001$; $F(2, 35)= 39.989$, $p<.001$.

측정도구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ask, 이하 IAT)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가 개발한 검사로, 사람들의 암묵적인 인지양식을 측정한다.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IAT에서 참가자들은 자기관련자극, 타인관련자극, 긍정단어, 부정단어를 분류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련자극으로 “나는”, 자기이름 영문이니셜, 자기 생일월, 이름을 사용하였

www.kci.go.kr

다. 타인 관련 자극으로는 "그는", 전체 참가자의 영문이니셜, 전체 참가자 생일월, 전체 참가자 이름을 사용하였다. 긍정 · 부정 단어로는 이니셜, 전체 참가자 생일월, 전체 참가자 이름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암묵적 연합검사를 이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De Raedt 등(2006)의 연구에서는 'capable, competent, inferior, failed, good, bad'가 쓰였고, Franck 등(2007)의 연구에서는 'capable, competent, successful, powerful, valuable, inferior, weak, failed, worthless, loser, stupid, loved'의 단어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취와 관련된 단어 외에, 대인관계적인 측면의 단어를 추가해서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긍정 · 부정 단어로는 Blackburn, Roxborough, Muir, Glabus와 Blackwood(1990)이 사용한 10개의 성취 지향 단어와 10개의 관계 지향 단어를 참조해, 국립국어연구원 어휘 빈도 자료(조남호, 2002)를 통해 빈도를 맞추고 글자수를 일치시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성취관련단어는(유능한, 성공, 영리한, 독창적인, 무능한, 실패, 멍청한, 쓸모없는)이었고, 관계관련 단어는(사랑스런, 착한, 친절한, 수용된, 까다로운, 못된, 차가운, 버려진)이었다.

검사는 E-Prime 2.0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자극은 화면 중앙에 검은색으로, 16 font의 크기로 주어졌고 배경색은 흰색이었다. "나관련자극", "타인관련자극", "긍정단어", "부정단어" 라는 범주명이 검은색 글자로 화면의 왼쪽 모서리와 오른쪽 모서리에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15인치 모니터에 대략 50cm 떨어진 곳에 앉았다. 실험은 IBM PC를 통해 이루어졌고, 운영체제는 Windows XP였다.

검사를 시작했을 때, 참가자는 두 개의 키 중 하나를 눌러 단어를 두 범주로 분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왼쪽키(A key)와 오른쪽키(L ley)에 지정되는 단어의 범주는 블록마다 달라졌다. 각각의 블록 시행마다, 참가자들에게 화면의 왼쪽 모서리와 오른쪽 모서리에 맞게 반응해야 할 범주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 참가자들에게는 되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하며 검사시간은 10분정도 걸릴 것이라는 지시문이 제시되었다.

검사는 총 아홉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블록은 8번의 시행으로 오직 "나관련자극" 과 "타인관련자극" 을 분류하는 연습시행이다. 두 번째 블록은 16번의 시행으로 "긍정 단어" 와 "부정 단어"를 분류하는 연습시행이다. 세 번째 블록 역시 16번의 연습시행으로 "나관련자극", "타인관련자극", "긍정단어", "부정단어"가 무작위로 주어지며, 반응키는 이전 시행과 같다(예를 들어, "나는"과 "유능한"은 왼쪽 키, "그는"과 "무능한"은 오른쪽 키에 반응하게 된다). 네 번째 블록은 32번의 자료수집 블록으로 방법은 블록 3과 같지만,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로는 성취관련단어만 사용된다. 다섯 번째 블록 역시 32번의 자료 수집 블록으로,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로 관계관련단어만을 사용한다. 여섯 번째 블록에서 범주에 대한 반응지정이 바뀌고 이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된다(예를 들어 "유능한"은 오른쪽 키, "무능한"은 왼쪽 키). 일곱 번째 블록에서는 다시 두 범주의 단어들이 모두 제시되고, 새로 바뀐 반응에 16회에 걸쳐 연습을 하게 된다(예를 들어, "나는", "무능한"은 왼쪽 키, "그는", "유능한"은 오른쪽 키). 여덟 번째 블록은 32번에 걸친 자료 수집 시행으로 일곱 번째 블록과 같은 과정이지만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로 성취관련단어만 사용된다. 아홉 번

www.kci.go.kr

째 블록은 32번에 걸친 자료 수집 시행으로 일곱 번째 블록과 같은 과정이지만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로 관계관련단어만 사용된다.

자극은 반응키가 눌러질 때까지 계속 화면상에 남아있으며, 만약 잘못된 반응을 나타낸다면 붉은 색으로 'Incorrect'가 400ms 간 제시되었고, 자극 간 간격은 400ms였다.

애너그램 검사(Anagram Task)

애너그램은 어떤 단어에 있는 영어철자를 이용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검사이다(예를 들어, team에 있는 철자를 다시 조합하면 mate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iroto와 Seligman(1975)이 학습된 무기력감을 유도하기 위해 썼던 과제를 변형해 참가자들의 실패 경험을 유도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애너그램 검사가 지능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되도록 빨리 맞출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예전 실험결과에 의하면 대학생 중 절반이 네 문제를 모두 맞추었다는 지시문을 읽었다. 애너그램 문제로는 rose, thing, silent, second가 주어졌다. 이 중 rose와 thing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silent는 답이 있지만 매우 맞추기 어려운 문제였고(정답률 20%), second는 답이 없는 문제였다. 한 문제당 최고 4분이 주어졌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다.

시각적 비율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실험 전후의 기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복, 우울, 분노 각각의 정서에 대해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0과 100사이의 범위를 가진 직선을 제시하고 수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실험 절차

참가자는 실험실에 온 뒤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RSES, BDI, VAS를 작성한 후 약 10분간 암묵적 연합 검사를 실시하였다. 9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1차 IAT 검사가 끝난 후에는 애너그램 검사를 10분간 실시했다. 이후 다시 1차 때와 같은 IAT 검사를 반복 실시하였다. 검사가 끝난 후, 모든 참가자들은 연구의 의미와 애너그램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받았다.

결과 및 논의

IAT 효과의 계산

IAT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Greenwald, Nosek과 Banaji(2003)가 제안한 개선된 점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우선 반응시간이 350ms 이하이거나, 10,000ms 이상인 경우의 시행은 제거했다. 기존의 경우 틀린 반응을 제거하였는데, Greenwald 등(2003)이 새롭게 제시한 점수 알고리즘에는 틀린 반응도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때는 틀린 반응의 반응시간을 그 블록의 평균반응시간에 600ms를 더한 값으로 대체했다(자료수집단계에서 평균 오류반응 개수는 6.11(SD= 4. 51)로 전체반응 중 4.8%에 해당했다). 자기관련자극과 부정단어에 대해 같은 키에 반응하게 한 자료수집블록의 평균 반응시간에서 자기관련자극과 긍정단어에 대해 같은 키에 반응하게 한 자료수집블록의 평균 반응시간을 뺐다. 이러한 반응시간의 차이를 각각의 자료수집블록의 표준편차로 나누었다.

www.kci.go.kr

여기서 나온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암묵적 자존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취 관련단어만 사용한 블록에서의 반응시간 차이를 성취관련 IAT효과로, 관계관련단어만 사용한 블록에서의 반응시간 차이를 관계관련 IAT 효과로 각각 명명했다.

애너그램 검사 효과 확인

애너그램 검사가 실제로 실패와 관련된 정서를 유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애너그램 검사를 실시하기 전후로 VAS를 이용하여 기분 변화를 체크하였다. 그 결과, 행복 변화량은 $t(37)=4.247$, $p<.001$, 분노 변화량은 $t(37)=-3.827$, $p<.001$였기 때문에, 애너그램 검사는 참가자들에게 실패 경험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우울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t(37)=-0.835$, *ns*, 이는 두 우울집단의 경우, 애너그램 검사를 실시하기 전부터 우울 정도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VAS 행복, 분노와 우울 변화량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35)=0.660$, *ns*, $F(2, 35)=0.342$, *ns*, $F(2, 35)=0.961$, *ns*

애너그램 검사 전후의 IAT효과 차이

애너그램 검사 전후의 IAT 변화 패턴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검사 전후의 IAT효과를 참가자 내 변인으로 하고, 성취 지향적/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통제집단을 참가자간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변화의 패턴은 그림 1에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성취관련 IAT효과에서 애너그램 검사 전후의 주효과는 나타났지만, $F(1, 35)=4.538$, $p<.05$, 집단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F(2, 35)=0.388$, *ns*. $F(2, 35)=0.728$, *ns*.

관계관련 IAT효과에서는 애너그램 검사 전후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F(1, 35)=4.243$, $p<.05$, 집단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2, 35)=1.530$, *ns*.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했다, $F(2,35)=3.295$, $p<.05$.

관계관련 IAT 효과에서 나온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원천을 밝히기 위하여 두 집단씩 묶어 집단 간 변인으로 하여 단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에서 유의미한 단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1, 25)=5.255$,

표 4. 집단 별 애너그램 전후의 IAT 효과 점수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 (n=13)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 (n=14)	통제집단 (n=11)	F (2,35)
성취관련 IAT효과	애너그램전	0.70 (.35)	0.64 (.48)	0.63 (.43)	0.108
	애너그램후	0.37 (.64)	0.58 (.48)	0.56 (.37)	0.707
관계관련 IAT효과	애너그램전	0.66 (.48)	0.63 (.63)	0.46 (.49)	0.989
	애너그램후	0.21 (.59)	0.67 (.52)	0.36 (.46)	2.591

www.kci.go.kr

표 5. 애너그램 검사 전후의 IAT효과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취 지향적 IAT 효과	성취-관계-통제 집단(A)	.272	2	.136	0.388
	S/A	12.265	35	.350	
	애너그램 검사전후(B)	.460	1	.460	4.538*
	AB	.148	2	.074	0.728
	BS/A	3.550	35	.101	
관계 지향적 IAT 효과	성취-관계-통제 집단(A)	.911	2	.455	1.530
	S/A	10.417	35	.298	
	애너그램 검사전후(B)	.533	1	.533	4.243*
	AB	.829	2	.414	3.295*
	BS/A	4.400	35	.126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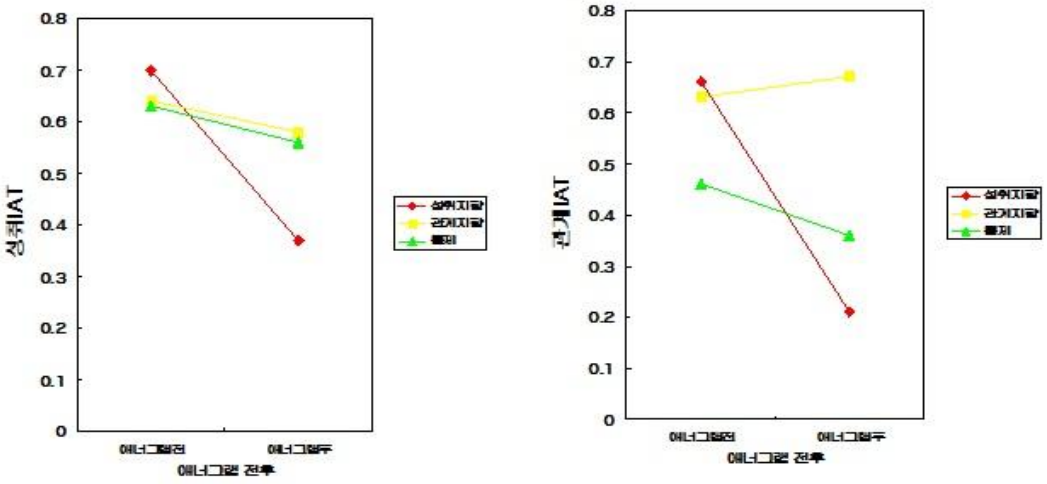

그림 1. 애너그램 검사 전후의 집단 간 IAT 효과

p<.05. 다시 집단별로, 관계관련 IAT효과의 애너그램 검사 전후 변화에 대한 쌍별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계관련 IAT효과 변화에서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은 애너그램 검사 이후에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 $t(12)=3.314$, p<.01. 애너그램 검사 전후로의 성취관련 IAT효과 변화를 쌍별 t-검증한 결과 역시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www.kci.go.kr

내지 않았지만,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은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 $t(12)=2.205$, $p<.05$. 즉,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이 자기보고식의 기분변화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IAT 효과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이 과제실패 후 더 큰 암묵적 자존감의 감소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과 부합하며, 우울증에서 자존감의 불안정성을 강조한 Kernis 등(1993)의 설명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의 암묵적 자존감과 명시적 자존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이 명시적 자존감에서는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암묵적 자존감은 더 낮은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암묵적 자존감 측정치를 통해 검증했다. 또한 각 우울증의 각 하위유형들이 실패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실 상황에서의 실패경험 유도를 통해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PSI-Ⅱ의 성취 지향성 점수와 관계 지향성 점수, BDI 점수를 통해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 및 통제집단을 구분한 뒤, 변량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자기보고식 검사인 RSES에서 우울의 두 하위유형은 통제집단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지만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암묵적 자존감 측정치 중의 하나인 IBPT를 이용했을 때는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이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 및 통제집단보다 더 낮은 암묵적 자존감을 나타내어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요약하면, 연구 1의 결과를 통해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은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과 명시적 자존감의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암묵적 자존감은 더 낮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암묵적 자존감은 명시적 자존감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이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에 비해 더 취약한 자존감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부분적으로 시사되었다.

연구 2에서는 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통해 다시 한 번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의 암묵적 자존감을 알아보았다. 기존 IAT 연구가 성취와 관련된 단어 자극만을 사용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영역과 관련된 단어를 추가해 성취관련 IAT효과와 대인관련 IAT효과로 암묵적 자존감을 세분해 측정했다. 성취관련 IAT효과와 대인관련 IAT효과에서는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 및 통제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이 전반적으로 낮은 암묵적 자존감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 1의 IBPT를 이용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각 집단의 표본수가 적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IAT와 IBPT가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Bosson et al., 2000).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은 과제실패 후 자기보고식의 기분변화에서는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IAT 점수에서는 다른 두 집단과 다르게 애너그램 검사, 즉 실패경

www.kci.go.kr

험 후 유의미한 정도의 암묵적 자존감의 하락을 보임으로써 과제 실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이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따라 자존감의 수준이 쉽게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자존감 불안정성을 지적한 Kernis 등(199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애너그램 검사가 유능성과 관련된 과제였던 만큼, 이 결과의 해석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암묵적 자존감 연구(Germar et al, 2001; De hart et al, 2006)에서 우울한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부분적인 답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암묵적 자존감 연구들은 우울한 사람들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암묵적 자존감의 수준에서 우울증의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똑같은 우울 증상을 나타내고 자기보고식의 검사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자존감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내적 구조나 인지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암묵적 자존감이 성격적 차원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존 이론들은 명시적 자존감이 최근의 경험을 반영하며 의식적이고 정교한 과정에 의해 형성되고, 암묵적 자존감이 명시적 자존감보다 먼저 발생하며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있다(Koole & Pelham, 2002). Dehart (2002)의 연구에서 이혼한 가정 출신의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 출신의 대학생들보다 더 낮은 자기이름철자 선호를 나타내었다. Zeigler-Hill, Bosson과 Brown(2002)은 이름철자 선호가 어린 시절의 애착안정성과 동료친구들로부터의 지지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유래한 우울의 두 취약한 성격 유형에서 암묵적 자존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암묵적 자존감과 성격적 차원과의 관계성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집단의 구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집단은 명시적 자존감과 우울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자존감의 수준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은 관계에서 철수되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거부를 경험하며, 더 많은 대인관계실패상황을 예상한다(Beck et al., 1983). 자존감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의 낮은 암묵적 자존감은 그들이 보이는 역기능적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넷째,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이 낮은 암묵적 자존감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이러한 암묵적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제안한다. Dijksterhuis (2004)는 "나"라는 단어와 긍정 단어를 연합시켜 역하지각으로 제시했을 때, IBPT나 IAT를 통해 측정되는 암묵적 자존감이 향상되고, 또한 부정적인 지능 관련 피드백을 받았을 때도 덜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Teachman과 Woody (2003)의 연구에서는 거미 공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출치료 전후로 거미에 대한 불안 정도를 IAT로 측정한 결과 노출 치료 후 거미에 대한 암묵적 불안이 줄어들었다. 본 연구

www.kci.go.kr

에서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 집단은 IBPT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낮은 암묵적 자존감을 나타냈고, IAT에서는 실패상황 이후 암묵적 자존감의 하락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때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을 임상장면이나 상담장면에서 접할 때는 이러한 낮은 암묵적 자존감을 잘 고려해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암묵적 자존감의 변화가 치료의 진전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점을 지닌다. 대학생 우울집단은 일반인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고, 또한 임상적 우울집단과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인 우울집단이나 임상적 우울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비임상적 우울집단과 임상적 우울집단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PSI-Ⅱ의 성취 지향성 · 관계 지향성 점수와 BDI점수를 이용해 성취 지향적 우울성향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집단을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예전 연구에서도 쓰이는 방법이지만,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성취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을 배제해 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Coyne & Whiffen,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 뿐 아니라, 구조적 면접, 관찰자 평정 등에 의해 두 집단 구분을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울집단 내에는 성취 지향성이나 관계 지향성 중 어느 한 성향만을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하위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실험실 상황에서 성취관련 실패 경험을 주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성취지향 집단이 나타낸 IAT 효과의 불안정성이, 성취관련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성취지향집단이 관계지향 집단에 비해서 더 자존감이 불안정해서 나타난 것인지 확실하게 결론내리기 다소 어렵다. 성취지향적 집단이 좀 더 취약한 암묵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관련 실패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암묵적 자존감 하락을 나타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의 대인관계실패 상황을 구성하여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교헌, 전겸구,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김순진 (1988). 성취 및 대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비판형 의존형 우울취약성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보영, 정남운 (2006). 자기 비판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패턴: CCRT 방법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21-45

오현주 (1997). 자기 비판적 우울 취약성과 의존적 우울 취약성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연구.

www.kci.go.kr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윤현수, 오경자 (2004). 우울의 유형에 따른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특성 -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577-594.
이민규 (2000). 한국판 PSI-Ⅱ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305-317.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조남호 (2002). 현대 국어 사용빈도 조사: 한국어 학습용 어휘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최승미 (1997). Rorschach 검사에 기초한 대상표상 평가.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Alden, L. E., & Bieling, P. J. (1996). Interpersonal convergence of personality constructs in dynamic and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60-75.
Arieti, S., & Bemporad, J. (1980). The psychological organization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360-1365.
Beck, A. T. (1987).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 2-27.
Beck, A. T., Epstein, N., Harrison, R. P., & Emery, G. (1983). *Development of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A measure of personality factors in psychopathology*. Unpublished manuscript, Center for Cognitive Therapy, University of Pennsylvania Medical School, Philadelphia.
Beck, A. T., Ward, C. H., Menda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Bieling P. J., & Alden L. E. (1998). Cognitive-Interpersonal patterns in dysphoria: the impact of sociotropy and autonom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 161-178.
Blackburn, I. M., Roxborough, H. M., Muir, W. J., Glabus, M., & Blackwood, D. H. R. (1990). Perceptual and physiological dysfunction in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20*, 95-103.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4*, 107-157.
Bosson, J. K., Brown, R. P., Zeigler_Hill, V., Swann, W. B. (2003). Self-enhancement tendencies among people with high explicit self-esteem: The moderating role of implicit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2*, 169-187
Bosson, J. K., Swann, W. B., & Pennebaker, J. W. (2000). Stalking the perfect measure of implicit self-esteem: The blind men and the elepha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31-643.
Bowlby, J. (1980). Development psychology comes of ag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10.
Clark, D. A., Beck, A. T., & Alford, B. A. (1999). *Scientific foundations of cognitive theory and therapy for depression*. New York: Wiley.
Coyne, J. C., & Whiffen V. E. (1995). Issues in

www.kci.go.kr

Personality as Diathesis for Depression: The case of sociotropy-dependency and autonomy -self-criticism. *Psychological Bulletin*. *118*, 358-378.

Dehart, T. (2002). *The hidden effects of early experiences: The origins and stability of implicit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Dehart, T., Pelham, B. W., & Tennen, H. (2006). What lies beneath: Parenting style and implicit self-esteem.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2*, 1-17

De Raedt, R., Schacht, R., Franck, E., & De Houwer, J. (2006). Self-esteem and depression revisited: Implicit positive self-esteem in depressed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1017-1028.

Dijksterhuis, A. (2004). I like myself but I don't know why: Enhancing implicit self-esteem by subliminal evaluative condi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345-355.

Franck, E., De Raedt, R., Dereu M., & Abbeele, D. V. (2007).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n currently depressed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8*, 75-85.

Gemar, M. C., Segal, Z. V., Sagrati, S., & Kennedy, S. J. (2001). Mood-induced changes 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n recovered depressed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282-289.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Greenwald, A. G.,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022-1038.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840.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97-216.

Hammen, C., Ellicott, A., Gitlin, M., & Jamison, K. R. (1989). Sociotropy/ Autonomy and vulnerability to specific life events in patients with unipola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154-160.

Hetts, J. J., & Pelham, B. W. (2001). Nonconscious elements of the self-concept. In G. B. Moskowitz(Ed.), *Cognitive social psychology: On the tenure and future of social cognition*. Mahwah, NJ: Erlbaum.

Hiroto, D. S., & Seligman, E. P. (1975). Generality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11-327.

Hokanson, J. E., & Butler, A. C. (1992). Cluster analysis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73-280.

Ingram, R. E., Miranda, J., & Segal, Z. V. (1998).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Jones, J. T., Pelham, B. W., Mirenberg, M. C., &

www.kci.go.kr

Hetts J. J. (2002). Name letter Preferences Are not merely mere exposure: Implicit Egotism as Self-Regul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170-177.

Kernis, M. H., Cornell, D. P., Sun, C. R., Berry, A., & Harlow, T.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190-1204.

Kitayama, S., & Karasawa, M. (1997). Implicit self-esteem in Japan: Name letters and birthday numb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736-742.

Koole, S. L., Dijksterhuis, A., & Van Knippenberg, A. (2001). What's in a name: Implicit self-esteem and the automatic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669-685.

Koole, S. L., & Pelham, B. W. (2002). On the nature of implicit self-esteem: The case of name letter effect. In S. Spencer, S. Fein, & M. P. Zanna (Eds), *Motivated social perception: The Ontario symposium* (Vol. 9, pp.93-11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Kovacs, M., & Beck, A. T. (1978). Maladaptive cognitive structures in depression. In C.E. Izard (Ed.), *Emotion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pp.417-442). New York: Plenium Press.

Nuttin, J. M. (1985). Narcissism beyond Gestalt awareness: The name latter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353-361.

Robins, C. J., Ladd, J., Welkowitz, J., Blaney, P. H., Diaz, R., & Kutcher, G. (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s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 277-300.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imizu, M., & Pelham, B. W. (2004). The unconscious cost of good fortune: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positive life events, and health. *Health Psychology*, *23*, 101-105.

Teachman, B. A., & Woody, S. R. (2003). Automatic processing in spider phobia: Implicit fear associations over the course of trea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100-109.

Zeigler-Hill, V., Bosson, J. K., & Brown, R. P. (2002). Unpublished data, The University of Oklahoma.

Zuroff, D. C., Moskowitz, D. S., Wielgus, M. S., Powers, T. A., & Franko D. L. (198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of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7*, 226-241.

원고접수일 : 2010. 10. 12.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0. 12. 8.
게재결정일 : 2011. 1. 12.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1, Vol. 30, No. 1, 305-323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n Autonomous and Sociotropic Depressed College Students

Seung-Jin Park **Hye-Ra Choi** **Hoon-Jin Lee**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of autonomous and sociotropic depressed college students. Specifically, we examined whether autonomous depressed students had lower implicit self-esteem than sociotropic depressed students, while exhibiting the same level of explicit self-esteem. Study 1 attemp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autonomous and sociotropic depressed students with respect to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using the implicit self-esteem measure, IBPT(Initials and Birthday Number Preference Task) and explicit self-esteem measure, RSES(Rosenberg Self-Esteem Scale). The Personal style Inventory(PSI), IBPT, RSES,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were administered to 391 college students. On the basis of PSI and BDI scores, two groups were selected: the autonomous-depressed students(A-D), and the sociotropic-depressed students(S-D). There was no group difference between the A-D and S-D groups in explicit self-esteem, however, A-D group had lower implicit self-esteem than the S-D group. Study 2 was carried out to confirm the differences between autonomous and sociotropic depressed college students with respect to implicit self-esteem using the implicit self-esteem measure, IAT(Implicit Association Task). The IAT effect was divided into competence-IAT and relation-IAT, and an anagram task was used to explore change in implicit self-esteem after a failure experience. Wih respect to the IAT,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groups; however, the A-D group showed a decrease in their IAT score, implying an instability in implicit self-esteem.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partially explained why previous studies have not found any differences in the level of implicit self-esteem between depressives and non-depressive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Also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utonomous and Sociotropic Depression, Implicit self esteem, Explicit self-esteem

www.kci.go.kr